

본문 : 야고보서 2 장 12-18

제목 : 속지 마십시오.

1. 인내하는 사람은 복됩니다

12 절부터 야고보서의 두 번째 서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번째 서론에서 야고보는 시험 가운데 인내하며 지혜를 따라가는 삶을 살라합니다. 두번째 서론에서는 시험가운데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말라고 권합니다. 12 절의 말씀은 첫번째 서론과 두번째 서론을 연결하기 위해 인내의 주제를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자연스럽게 두번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인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Gym 에 가면 근육맨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며 멋있다는 생각보다 저 근육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인내하고 노력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내의 결과물이 바로 그들의 근육질 몸매입니다. 요즘 동계 올림픽 기간인데 대한민국은 스노우 보드와 쇼트트랙 계주에서 금메달을 땀습니다. 이 선수들이 금메달의 영광을 얻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인내하며 훈련해 왔는지 우리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스노우 보드에서 금메달을 딴 최가온 선수는 17 살 밖에 되지 않았는데 15 세에 부상으로 척주에 6 개의 철심을 박는 수술을 했는데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고 결국 금메달의 영광을 얻게 됐죠. 성경은 시험을 인내하고 견뎌낸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고 약속합니다. 야고보서 5 장 11 절 말씀에 야고보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해 줍니다. "보십시오. 참고 견디는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구약의 지혜서인 욥기를 인용해서 욥의 인내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이유 없는 환란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신다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 장 3-4 절 말씀도 이 말씀을 지지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시험과 환란 중에 인내함을 통해 온전한 인격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험과 환란 가운데 인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십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이유도 없는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인내하시며 견디시길 바랍니다.

견디고 인내하는 이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줍니다. 주님은 그들을 가엽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건져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 약속합니다.

2.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오해하지마

시험과 환란 중에 나오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불평과 불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시려고 이런가 하는 생각까지 합니다. 내가 바라는대로 되지 않고 일이 꼬여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또 나의 삶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불평합니다. 야고보는 13 절을 통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시험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일관되게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마태복음 7 장 11 절)”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지난 주 제 막내를 재우며 누워서 제가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좋은 사람인 걸 믿어?” 애가 아니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응 믿어.” 라고 말하더군요. “아빠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인 걸 믿지?” 그러자 “응”이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아빠보다 훨씬 좋은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어린 아들에게 이 논리가 설득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하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요?

3. 욕심이 약속하는 것에 속지마세요

야고보는 사람이 시험 당하는 것은 각자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혹은 욕심의 꾀에 빠져서 그런 것이라 말합니다. 욕심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욕심은 우리를 끌어 당기는 매력이 있고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지난 주 설교에 말씀드렸던 ‘보물’을 따라가는 마음을 욕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 이라는 영화를 보면 스미골이라고도 하고 골롬이라고도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스미골은 호빗족과 비슷한 난쟁이 종족이었고 강가에 살았습니다. 그의

생일날 친구와 함께 우연히 강가에서 낚시를 하던 중 친구가 사우론의 절대반지를 줍게 됩니다. 반지를 보는 순간 스미골은 그것을 반드시 소유하겠다는 집착이 생깁니다. 결국 친구의 목을 졸라 죽인 후 그 반지를 얻게 됩니다. 마을에서 쫓겨난 스미골은 안개산맥의 깊은 동굴에서 5 백년 동안 지내며 망가져 갑니다. 그가 했던 가장 유명한 대사는 "My Precious"이죠. 마음의 보물인 반지에 집착하는 스미골은 친구를 죽이는 죄에 빠지고 결국 자기 파멸에 이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성경의 진리를 매우 잘 묘사해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물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처럼 보이죠. 우리도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보물을 향해 "My Precious"하며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쫓아가는 보물인 "My Precious"가 줄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에 속지 말라고 야고보는 부탁하고 있습니다. 16 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다는 광고가 넘쳐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온갖 좋은 것을 내가 소유했을 때 나는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럴싸하여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 보물을 따라가는 삶이 설득력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스미골의 비극은 그가 반지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반지가 그를 소유하게 된 것에 있었습니다. 보물이 그의 삶을 조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보물의 노예가 되어버렸죠. 더 갖고자 하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게 됩니다. 욕심이 약속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의 결말은 죽음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딤후 3:2)"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까지 말하면서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도 떠나고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거라 경고합니다(딤후 6:10).

제게 뼈아픈 경험 하나가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 애플에서 아이패드가 처음 나왔습니다. 당시만해도 저는 얼리어답터란 말을 들을 정도로 애플 기기를 잘 활용할 줄 알았습니다. 없는 형편에 아이패드가 무척 갖고 싶어지더라고요. 새 기계는 도저히 사기 힘들어 중고나라를 뒤졌습니다. 다른 것보다 조금 싸게 올라온 물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결제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물건을 받기도 전에 입금했습니다. 그 당시 전도사였던

저의 월급은 70 만원이었는데 45 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물건은 안 오고 판매자는 연락이 안 났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이죠. 몇일 잠을 못 잤습니다. 그 이후 작은 예이지만, 욕심을 따라가는 삶은 결국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4. 땅의 지혜 vs 하늘의 지혜

야고보서 3 장 14-15 절에 보면 하늘의 지혜에 대비되는 “땅의 지혜”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땅의 지혜는 제국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제국의 이야기에도 통찰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국의 이야기에도 처세술도 있고 삶의 기술도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밑바탕에는 경쟁이 깔려 있고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전제돼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My precious”를 따라 살아 갔을 때 사망에 이를 수 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어떻게 죄를 낳게 되나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 욕심이 나를 이끄는대로 끌려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욕심은 자기중심성이라는 숙주에 붙어서 자랍니다. 자기중심성이라는 함정에 빠지면 자기 혼자서도 충분하다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거나 분리되게 되지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단절 또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죄라 합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 때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고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나르시스증적 증상입니다. “나는 나를 숭배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당신들은 나를 경배해야 해.”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소유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려고 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죠.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욕망은 무조건 나쁜 것인가요? 재물은 무조건 필요 없는 것이고 사람들의 인정도 필요 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먹고자 하는 욕구가 없다면 우리는 죽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 받고자 하는 마음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저는 점점 시들어져 힘을 잃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정과 격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재물도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란 것을 나의 임금이나 보수를 통해 증명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과 다른 사람의 인정은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섬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쓰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됩니다. 재물을 이용할 줄 알아야지 재물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맘몬이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눅스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 쌓아 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쫄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마 6:19-20)" 재물을 자기를 위해 쌓아 두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허비하라는 말입니다. 쌓아 뒤봤자 녹슬기 때문입니다.

5. 니가 욕망하는(사랑하는) 것이 바로 너야.

기독교가 이 세상 속에서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 힘이 없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는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계몽주의란 지식과 이성 그리고 과학이 이 세상을 진보시킬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계몽주의 이전의 서양의 철학은 존재론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가 존재론이죠. 그런데 이 존재론에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입니다. 그는 사람답다는 것은 존재에서 시작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이유를 존재에서 찾지 않고 인식에서 찾았습니다.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나를 사람이게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한다는 이 사실이지" 이러한 인식론이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교리와 성경의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초점을 지식과 얹에 맞춰온 것이죠. 교회의 제자훈련도 모두 암기와 지식 전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지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발상이었죠. 하지만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과 기도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것은 다른 것이죠. 욕망이 바뀌지 않고, 욕구가 바뀌지 않는 한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것과 바라는 것은 다름을 알게 된 것이죠. 수십년 교회를 다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를 성숙한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속 깊은 곳에 어떤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느냐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보물을 따라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무엇을 사랑하며 욕망하는 지가 무엇을 어느나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힘이 없는 것은 얹이

삶을 바꿔 놓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이 바뀌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으니 영향력을 잃어 버린 것이죠.

옆동네 미시간에 Calvin College 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백인 학생들이 많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 온 학교로 유명합니다. 이 학교의 교수이신 James K. A. Smith 는 그의 책 <습관은 영성이다>에서 제가 방금 말한 이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동안 켈빈 칼리지에서 수 없이 많은 학생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교육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의 삶을 보니 Non-Christian 세계관을 가진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많은 졸업생들이 일반적인 미국 중산층들이 추구하는 American Dream 을 따라 살면서, 복음을 위해 자기 삶의 방식을 조금도 내려 놓지 않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미국 중산층들의 어메리칸 드림이 뭘니까? 서버브 지역에 살면서 대형 주택을 소유하고 대형 차를 몰고 살아가는 그런 꿈이죠. 그런 삶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더라는 겁니다. 스미스 교수님은 욕망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것을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으로 썼습니다. 그 책에서 스미스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You are not what you know, but what you love.” 당신이 욕망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당신이라는 거죠. 아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욕망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6.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가치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에 집착하게 되는 것을 C.S. Lewis 는 교만이라 말합니다. 자기가 너무 큰 것이죠. 아직도 내가 욕망과 욕구를 쫓아 가며 살고 있다는 것은 아직 나보다 더 큰 가치를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름답고 탁월한 것을 만나면 자기를 잊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존재를 만나면 우리는 굉장히 쉽게 우리들의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대자연 앞에 설 때가 그렇습니다. 미네소타에서는 힘들지만 한국에 있을 때 저는 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힘든 일이 있을 때, 집 가까이에 있던 안산이나 북한산을 오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저 아래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도 작게 보이게 됩니다. 높은 전망이 나를 더 큰 세계와 연결시켜 준 것이고 내가 씨름하는

작은 문제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하루는 새벽 일찍 교회에 와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구요. 로체스터 랜드마크인 옥수수탑 위로 구름들이 펼쳐져 있는데 햇살이 구름에 비치면서 주황색 아름다운 하늘이 장관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게 되더라구요. 나보다 더 탁월한 존재, 나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 앞에서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욕망보다 훨씬 탁월한 존재를 만났을 때에만 우리는 욕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바울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육신의 욕망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다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이신지 깨닫게 해주시죠.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들이 하늘에 계신 빛의 아버지로부터 나에게 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 선물을 가지고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부디 속지 마십시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 욕망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더 큰 세계, 더 아름다운 존재, 더 탁월한 분과 만나기 위해 힘쓰는 시간입니다. 나의 문제를 잊게 만드는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더 노력하는 시간입니다. 교회 전통에서는 세 가지 실천을 사순절에 강조했습니다. 금식과 기도와 선행입니다. 농경 문화에서 자란 저에게 아침 식사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리터지입니다. 하지만 올해 사순절에는 아침 식사를 포기하고 오전 금식을 실천해 보고 있습니다. 금식에서 멈추지 않고 기도와 선행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뵤의 실천을 통해 여러분의 욕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금식과 기도와 선행을 실천하시면서, 크신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욕망으로 가득한, 복된 사순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